


성명	한글 (한자, 예명)	조공례	지역	진도군	사진
	분야	국악	출생 ~사망	1925 ~ 1997	
개요	국가무형문화재 제51호 남도들노래 창(唱) 분야 기능보유자.				
연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925년 진도 출생 ▪ 197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1호 남도들노래 창분야 기능보유자 인정 ▪ KBS 남도명창대회우수상, 전국명창대회우수상, 전국민요경창대회최우수상 ▪ 1997년 사망 				
생애 및 활동	<p>1925년 전라남도 진도에서 태어났으며, 본관은 창녕(昌寧)이다. 1942년 간이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스승 없이 아버지 조정옥 슬하에서 자연스레 창을 익히기 시작한 이후 평생을 흠과 더불어 살면서 남도들노래를 계승, 보급하는 데 힘쓴 국악인이다.</p> <p>1974년 중요무형문화재(현 국가무형문화재) 제51호 남도들노래 창 분야 기능보유자로 인정받은 뒤 KBS 남도명창대회 우수상(1981), 전국명창대회 우수상(1990), 제8회 전국민요경창대회 최우수상 등을 받았다.</p> <p>남도들노래는 호남지방의 농요(農謠)로, 모를 찢 때 부르는 《모뜨는 소리》로 시작해 모를 심을 때 부르는 《못소리》, 김을 맬 때 부르는 《절로소리》를 거쳐 농부들이 마을로 돌아올 때 부르는 《길꼬냉이로》로 끝난다.</p> <p>조공례는 기층 민중의 삶이 그대로 묻어나는, 소박하고 수수하면서도 전혀 위축됨이 없는 깨끗한 소리로 이 남도들노래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인정받게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, 《강강술래》 《진도 상여소리》 《진도아리랑》 《진도 다시래기》 등 호남지방 민요에 두루 능해 《뿌리 깊은 나무 조선소리 선집 10》 《조공례의 대지의 창(窓)》 《진도 들노래》 등의 음반을 남기기도 하였다. 1997년 죽은 뒤에는 외동딸 박동매가 남도들노래 조교로 대를 잇고 있다.</p>				
기록물 참고문헌	<p>[네이버 지식백과] 조공례 [曹功禮] (두산백과)</p> <p>사진출처 :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전통 예인 백사람, 초판 1995., 4쇄 2006.</p>				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1208632&cid=40942&categoryId=39201 ▪ http://terms.naver.com/entry.nhn?docId=1697327&categoryId=42697&cid=42697 				